

# 전북보건교사회, 난치병 남매에 사랑 나눔

## 무통성무한증 앓는 남매에 100만원 성금 전달

전북보건교사회(회장 윤수경)는 최근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연우(11, 가평)·하늘(8, 가평) 남매에게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주에 살고 있는 연우·하늘 남매는 무통성무한증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다. 무통성무한증이란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것에 데어 화상을 입어도 느낌이 없으며 땀을 흘리지 않아 체온 조절이 어려운 희귀병이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예니지 조절이 안 되는 까닭에 또래 친구들보다 2~3배 정도 고열량으로 밥을 먹어야 하며 아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희귀질환이라 약이나 주사도 없다. 보통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은 고열로 인한 뇌세포 손상으로 지적장애를 겪는데 얼마 전 연우와 하늘



전북보건교사회는 최근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연우·하늘 남매에게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은 각각 지적장애 3급과 경계성 지능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접한 전북보건교사회에서는 연우·하늘 남매의 집을 직접 찾아가 부모님께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전북보건교사회에서는 2001년부터 '난치병 제자 사랑' 기금을 마련하고 19년째 난치병 어린이를 돕고 있다. 해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난치병 어린이 4~5명을 선정 한 뒤 성금을 전달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84명에게 8,400만원의 성금을 전했다. 윤수경 회장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보건교사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서·사랑 남매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성덕면 주민자치위,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혜영)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 성덕면 복지회관에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벌여 지역사회에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주민자치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배추 수확부터 간배추 씻기, 버무리기 등 정성 들여 직접담가 26개 경로당에 김치와 백미(10kg) 1포씩 전달하였고, 독거 남성 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 36세대에게도 김치를 배달 봉사했다. 성덕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관내 어려운 세대를 돕기 위해 정성스런 사랑의 손길을 모아 손수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부터 김치 배달까지 함께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남원경찰, 체포술 교육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최근 경찰서 교통체육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경찰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포술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체포술 훈련은 지역경찰관의 자신감 회복 및 대응능력 고취를 위해 올해부터 남원 유도체육관의 정영문 관장을 초빙해 매달 6회씩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실제 범죄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경찰관 피습 대처 체포술 및 2인 1조 실전연습이 이루어졌다. 교육현장을 찾은 함현배 서장은 "남원경찰은 앞으로도 꾸준한 체력단련으로 현장대응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경찰관 자신의 몸도 지키고, 시민들의 안전도 지키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경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경찰,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최근 노안초 앞 스톨존에서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와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학교주변 시설점검 및 운전자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 스톨존 내 30km/h 이하 서행, 진로변경 시 깜빡이 켜기, 음주·과속운전 금지 등 피켓팅 활동을 펼쳤다. 또한, 어린이에게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서다-보다-걷다" 안전보행 3원칙을 강조하며 학용품세트, 물티슈 등 홍보용품을 배부하는 교통안전캠페인을 펼쳤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이 안전한 남원,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에 지속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완주군 용진읍, 이웃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완주군 용진읍이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이웃을 위해 연탄을 배달했다. 20일 용진읍은 (사)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와 함께 최근 자원봉사센터 행복나눔봉사단,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진읍사무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과 희망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3가구에 총 1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한껏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의 봉사자들이 힘을 보탰다. 정재조 용진읍장은 "올해 연탄에는 여러 단체의 관심으로 좀 더 많은 이웃들에게 연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주민들의 관심으로 용진읍 전체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진읍은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장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들의 후원으로 사랑의 쌀나눔, 김장김치 및 이불나눔, 먹거리 나눔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순창군 북흥남여의용소방대 이웃사랑 나누기

순창군 북흥면 의용소방대(남 대장 김중식, 여 대장 김은숙)는 추위되는 날씨에 사랑의 운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겨울철 공동생활을 주로 하는 북흥면 관내 마을회관 30여 곳에 사과 10kg 32박스를 전달하면서, 마을회관에 대한 안전점검과 화재 시 대피방법을 알렸다. 동네 주민은 "신경 써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사과도 주고 불났을 때 대피 방법까지 알려줘 고맙다"라고 했다. /순창=이원일 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사랑의 김장 김치 담그기 봉사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20일 무주군 무남면에 위치한 '하은의 집'을 찾아 사랑의 김장 김치 담그기 봉사를 진행했다. 재단 직원과 하은의 집 관계자 등 20명이 참가한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사랑이 가득 담긴 40여 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았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재단 정대용 과장은 "원생들이 겨울에 먹을 김장 김치를 담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된다"라며 "정성을 가득 담은 김치를 원생들에게 선물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근섭,민간위원장 한효동)는 지난 19일에 위원 및 협력기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기회의를 개최 하였다.날 회의는 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회의 내용으로는 김산면 맞춤형복지지원,정부 지역복지정책 방향의 일환이란 주제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공공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 사회복지 인적안정망 확대 구축을 위한 김산면 행복지킴이 및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행결과와 2020년 시행 계획 등 논의 하였다. 또한 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보건소 '2019 골든시티, 골든벨을 울려라' 왕중왕전 개최

김제시보건소는 20일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단일질환으로서 국내 사망률 1위이며 중증장애를 발생시키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연초부터 추진한 '골든 시티, 골든벨을 울려라' 왕중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19개 읍면동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60세 이상 어르신 50명이 문제에 집중하며 데크레이션 강사의 진행에 맞춰 웃음과 긴장 속에 문제를 풀어가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 담당자들에게 받았던 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진행했다. 김형희 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스스로 관리,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심뇌혈관 질환 발생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